

[논단]

‘거룩한 독서’와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에 나타난 내적인 삶의 도구들*

■
정 태 영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영성지도 신부]

서 론

1. ‘거룩한 독서’와 관련된 중세사상 연구자들
 - 1.1. 빌마트
 - 1.2. 체누
 - 1.3. 르클레르크
 - 1.4. 앙리 드 뤼박
 2. ‘거룩한 독서’와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들
 - 2.1. 「계시헌장」
 - 2.2. 「주님의 말씀」
 - 2.3. 「복음의 기쁨」
 - 2.4. 「강론지침」과 「사제성소의 선물」
 3. ‘거룩한 독서’와 관련된 중세 영적 저자들의 본문들
 - 3.1. 생 빅터의 후고의 「디다스칼리콘」
 - 3.2.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
 - 3.3. 귀고 2세의 「수도승의 사다리」
 - 3.4. 상호 간의 영향과 이후 시대의 약화
 4.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에 나타난 내적인 삶의 도구들
 - 4.1. 거룩한 수업
 - 4.2. 독방
 - 4.3. 내면의 방
 - 4.4. 관상
 - 4.5. 의식성찰
 - 4.6. 영적 지도
- 결 론

서 론

오늘날 본당 사목은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캠프와 강연,

* 이 글은 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먹거리 장터 등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하는 ‘사목 아이디어’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 신자들의 수적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정된 임기기간 동안 책임을 맡고 있는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깊이 있는 대안보다는 단기간에 양적효과가 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한 판단이다.

지구회합이나 사제들의 모임에서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들도 신자들의 흥미감을 만족시키거나 ‘다른 본당에서 하는 것, 우리 본당도 한다’는 의무감에서 도입되기 쉽다.

그러나 여러 연구소들, 가톨릭계 대학의 교수들이나 신학교 양성자들은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교회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그리스도교적 신비주의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룩한 독서’와 그것의 실천을 위한 내적인 삶이 가능한 사목환경 조성을 위해 중세 교회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

따라서, 제1장에서는 20세기 초반 ‘거룩한 독서’에 대한 중세 연구가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20세기 후반이후 지금까지의 ‘거룩한 독서’와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들을 정리해 보겠다. 제3장에서는 중세 영적 저자들의 본문들에서 ‘거룩한 독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교해보고, 제4장에서는 ‘거룩한 독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내적인 삶의 도구들을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미래의 본당은 행사중심이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느님 현존의 신비를 체험하는 곳이 되고, 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본당(parochia)은 일상의 삶을 사는 곳(οικί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곳(παροικία)임을 다시 기억해야 하겠다.¹⁾

1) 참조: ‘아브람은 나그네살이하려고(παροικῆσαι ἐκεῖ)이집트로 내려갔다’(창세 12,10); ‘메세에서 나그네살이(ἡπαροικία μου)하고 케다르의 천막사이에서 지내야 했으니 [...]’(시편 120,5).

1. ‘거룩한 독서’와 관련된 중세사상 연구자들

본장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신학자들 중에서 중세 문헌들과 ‘거룩한 독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한 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이들 가운데 문헌 연구가였던 빌마트(André Wilmart, 1876~1941), 가톨릭 신학에 역사의 개념을 도입한 체누(Marie-Dominique Chenu, 1895~1990), ‘수도신학’에 대한 연구로 업적을 남긴 르클레르끄(Leclercq, Jean, 1911~1993), 중세의 성경주석 방법을 깊게 탐구한 앙리 드 뤼박(Henri de Lubac, 1896~1991)을 선정하였다.

1.1. 빌마트

빌마트는 프랑스 베네딕트회원으로로서 중세 영성 연구가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중세 라틴의 영적 저자들과 신심서적들」이다. 그가 이룬 연구활동 중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대 그레고리우스(Gregorius I, 590~604)와 베르나르두스(Bernard de Clairvaux, 1090~1153) 사이의 시대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었던 장 페캉(Jean de Fécamp, +1079)의 발견이다. 또한 빌마트는 12세기에 쓰여지고 수도 초심자들을 위한 영적 수련서로 유명했던 「황금편지」(*Epistola Aurea*)²⁾의 저자가 생티어리의 기욤(Guillaume de St. Thierry, 1085~1148)임을 입증하였다.³⁾

중세의 수사본 연구가인 빌마트는 12세기를 ‘근대 영성’(la spiritualité moderne)이 시작된 시기라고 평가한다.⁴⁾ 12세기에 종합된 ‘거룩한

2) 정식명칭은 『하느님의 산 형제들에게 보내는 빌렘무스의 편지』(*Epistola Domini Willelmi ad Fratres de Monte Dei*)(1144년경에 쓰여짐)인데 베르나르두스의 작품을 편집한 마비용(Jean Mabillon, 1632~1707)이 이 편지를 『황금편지』(*Epistola Aurea*)라고 칭하였다(1690). (F. Tyler Sergent, et al., *Unity of Spirit: Studies on William of Saint-Thierry*, Minnesota, 2015, p.xxxiii). 고문서 전문가였던 마비용의 이런 표현에는 작성된 후 500여 년간 영성사 안에서 있었던 이 글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태영,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에 나타난 거룩한 수업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19, 4쪽). 참고. 시토회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 수도원 편역, *황금서간*, 마산, 2003.

3) André Wilmart, *Auteurs Spirituels et Textes Dévots du Moyen age Latin*, Paris, 1971, p.260.

독서'중심의 영적 수련 전통은 13세기 스콜라 신학의 이성적 학문 추구의 풍요로움에 밀려나 잠든 것처럼 있다가 14세기 근대 신심 운동(Devotio moderna)으로 강력하게 돌아온다. 데보시오 모데르나는 13세기 스콜라 신학에 대한 반작용이며, 새로운 신학 방법론에 반대하는 고대 신학의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⁵⁾

빌마트의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중세의 기도문들이다. '거룩한 독서'와 영적 수련으로 소화해낸 이해를 기도의 형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다. 빌마트가 연구한 자료들⁶⁾은 국제신학 위원회가 말하는 '오늘의 신학에 가장 적합한 양상'들이인 영광과 찬미의 기도문들이다.⁷⁾

1.2. 체누

체누는 스승인 라그랑즈(Réginald Marie Garrigou-Lagrange, 1877~1964)와 달리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의 신학을 역사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지 않고, 「신학대전」도 그 시대의 산물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의 전통이 스콜라 신학으로 인해 밀려났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스콜라 신학이 전성기에 접어들던 1250년경 이후로, '성경=신학'이라는 공식이 무너졌다. 길고 짧은 '요약'(summa)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주석(exégèse)은 본문에 고정되는 반면, 교의신학은 논리적 질문을 통해 이루어져서 성경해설(commentaires)과 멀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성서학과 성서신학이 분리되고 말았다.⁸⁾ [...] 13세기에 성경은 여전히 신학 교육의 본문적 기초 사용되긴 하였지만, '독서'(lectio)는 점점 더 '질문

4) 참고: M.-D. Chenu, o.p., *La Théologie Au Douzième siècle*, paris, 1976, p.224.

5)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평가는 체누의 책에 서문을 쓴 질송(Etienne Gilson 1884-1978)의 입장이다(참고 M.-D. Chenu, o.p., *op.cit.*, p.9).

6) 빌마트의 연구자료는 대부분 중세의 전례와 신심 기도문들이다(cf. André Wilmart, *op.cit.*, pp.625~626).

7) 국제신학위원회,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 손희송 외 옮김, 2012, 87쪽.

8) 참조: M.-D. Chenu, o.p., *op.cit.*, p.204.

들’(questiones)에 압박을 받았고, 성경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는 신학적 결론의 연역에 범람당하고 있었다.⁹⁾

체누에 의하면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나 귀고 2세의 「수도승의 사다리」와 같이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전통에 바탕을 두고 성서에 대한 영적이해를 돕는 가르침과 작품들이 지난 천년동안 스콜라 신학으로부터는 홀대를 받았지만, 신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영적 수련과 신학의 방법이었다고 한다.

지난 20년간 신학분야에서 ‘성서의 영적이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났다. 그 결과 교부들의 예행론적 주석만이 아니라 교부들의 유산 위에 중세 서양저자들이 개발한 (주석)방법들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새로워졌다. 이는 단지 오리게네스의 명망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라틴 주석의 역사가 주해와 덧붙인 글들의 잡동사니로부터 진부한 스콜라학자들을 힘겹게 할 가치 있는 작품들을 되찾는 시도이다. 그 작품들은 지난 천년동안 신자들과 ‘말씀에서 샘솟는 신학’을 양육하여 왔다.¹⁰⁾

또한 체누는 신학이 학문이고자만 할 때 그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신학은 학문(science)이기보다 지혜(sagesse)이다. 신학자는 교수이기만 할 수 없다. 그것은 신학의 승리인 동시에 위험이다. 13세기에 성공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현세적이고 영적인 구조를 위해 학문적 기능은 필요하다. 하지만 신학이 복음적으로 머물러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고, 항상 옛 증거자들에게로 돌아가고, 무의식적인 학문주의 안에서 신비에 대한 대상을 거부하며, 엄격한 설명 가운데도 신앙의 자유로운 친밀감을 간직할 때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¹¹⁾

1.3. 르클레르크

르클레르크는 ‘수도 신학’에 대해 영향력 있는 연구를 남겼다. 대

9) Cf. M.-D. Chenu, o.p., *op.cit.*, p.210.

10) M.-D. Chenu, o.p., p.191

11) M.-D. Chenu, o.p., p.250.

표저서로는 「배움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그는 수도신학이 교부시대와 스콜라 시대 사이에서 위치하는 일정 시기의 신학으로 이해하는 것을 거부한다. 수도 신학이 단지 지나간 시대의 학문이 아니라 스콜라 시대에도 ‘신앙의 삶’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웠고, 지금도 그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¹²⁾

그에 의하면, 베르나르두스와 생티어리의 기욤이 아벨라르두스와 벌인 논쟁은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 거부하는 그런 종류의 반동이 아니었다. 그들의 비판은 오히려 교회의 앞날에 대한 염려와 통찰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아벨라르두스로 인해 종교적 실재를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어떤 실재로 축소시키려하는 시도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방법 뿐 아니라 교의도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두스와 생티어리의 기욤은 아벨라르두스가 변증법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어떤 잘못되고 위험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19세기의 어떤 역사가는 성 베르나르두스 같은 사람에게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학 대전에 나오는 반대와 자유토론도, 아벨라르두스의 신학처럼 충격적인 지적 무례함이고 인간적 교만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20세기 이후—에 많은 역사가들은 베르나르두스의 통찰력을 올바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¹³⁾

르클레르크는 철학자의 학설(*la doctrine des philosophes*)보다, ‘그리스도교의 원천들에 관심을 갖고,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탈을 막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계시 안에 담겨진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고 말한다.¹⁴⁾ 또한 그의 연구에 의하면 스콜라 신학이 태동하던 12세기에 앵글로-노르만의 수도자였던 성 안셀무스의 제자 중에 에아드머(*Eadmer*, 1060~1126)는 성모님의 원죄없으신 잉태를 고백하는 첫 신학자가 되었다.¹⁵⁾ 이것은 당시 논리에 바

12) Jean Leclercq, O.S.B, *The love of learning and the desire for God; A Study of Monastic Culture*. tr. Catharine Misrahi, New york, 1996, p.224.

13) *Ibid.*, p.208.

14) *Ibid.*, p.209.

탕을 둔 지나친 토론과 변증에 치우친 신학에 대한 항변이자 신비에 대한 열린 마음의 고백이었다.

똑똑한 신학자가 ‘옛 사람들의 단순함’과 비교되는 것은 다소 모순이다. “배움은 많지만 사랑이 없는 새 박사들은 참된 선의 든든한 기초위에서 있기보다 지식으로 부풀어 올라있다.” [...] 그들은 옛 사람들의 단순함과 사랑으로 우주의 여왕을 위해 세워놓은 것을 용의주도하게 파괴시키려 한다. [...] 끝으로, 나는 나 자신과 나의 지향을 성모님과 그분의 아드님께 맡긴다. 나의 여왕, 내 주님의 어머니, 내 마음을 비추시는 어머니시여 [...] 나는 마리아께서 원죄없이 잉태되심을 믿고 고백한다. 성모님은 어떠한 작은 흠으로부터도 자유로우시다.¹⁵⁾

1.4. 앙리 드 루박

앙리 드 루박의 대표적 저서는 「중세 주석」이다. 이 책에서 그는 ‘신앙의 이해’라는 것이 지성이 획득하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성 자체를 변화시키며 지성이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을 ‘달게 하는 힘’이라고 설명한다.¹⁷⁾ 총 4권으로 된 이 책에서 그는 성경의 네 가지(문자-비유-도덕-영적) 의미를 통해 ‘신앙의 이해’를 추구했던 고대와 중세의 주석가들을 탐구한다. 특별히 오리게네스의 영향이 중세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며 그를 그리스도교 해석학의 아버지로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12세기 이래로 스콜라신학은 이전의 권위 있는 교부들의 가르침들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를 지배했던 경건한 성찰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볼 때, 교부와 중세의 성서해석수련은 성경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계시에 대한 보편 그리스도교의 성찰로서, 신학과 역사, 교회론, 윤리, 영성을 모두 포함한다.¹⁸⁾

15) *Ibid.*, p.209.

16) G. Geenen, o.p., *Virgo Immaculata, Acta congressus mariologici* 5, Rome, 1955, pp.90~136.

17) Henri de Lubac, *Exégèse Médiévale I*, Montaigne, 1959, p.13.

18) Cf. Robertson, *Lectio Divina: The medieval Experience of Reading*, Minnesota, 2011, p.17.

고대 그리스도교의 주석은 굉장히 큰 어떤 실재로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 범위의 광대함과 암시의 풍부함과 토대의 깊이와 구조의 고유성이 더 잘 드러난다. 고대 그리스도교 주석은 다양한 느낌을 동반하며 ‘그리스도교 사건의 경이로운 새로움’을 다시 솟아나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교 사건의 전후를 섬세하게 논리적으로 따져 본다. 주석은 역사적 실재와 영적 실재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회와 개인, 시간과 영원의 관계를 규정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교의 주석은 성서 신학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역사 신학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주석은 모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규정된 구체적 중심의 주변으로 배열한다. 그리스도교 주석 안에는 교의와 영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있다. 그리스도교 주석은 글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풍요로움과 힘을 가진 예술로도 표현된다. 종합하자면, 고대 그리스도교 주석은 ‘주석의 옛날 형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문학과 예술의 씨줄이고, 본질적으로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다. 또한 그것은 오랜 시간동안 다듬어진 그리스도교 종합의 가장 중요한 형상(*la forme*)이다. 최소한 그 종합을 이루는 도구이고, 오늘날 가장 유효하게 그 종합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¹⁹⁾

오랫동안 하나로 있었던 ‘주석’과 ‘영성’은 스콜라 학자들에 의해 분리되었고, 성경은 신비를 잃은 단지 연구의 대상물이 되어 버렸다.²⁰⁾ 20세기 초 학문적 의무론이 지배하는 역사-비평적 연구가 주도적이던 분위기에서 그에 맞선 드 뤼박의 신학은 도전적 대안이였다.²¹⁾

또한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계시현장」(*Dei Verbum*)의 작성에 참여하여 공의회교부들과 함께 ‘거룩한 독서’의 부활을 강조하였다.

2. ‘거룩한 독서’와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들

본장에서는 교회의 교도권에서 ‘거룩한 독서’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룩한 독서’가 일부 수도자나

19) Henri de Lubac, *op.cit.*, pp.16~17.

20) Henri de Lubac, *op.cit.*, p.14.

21) Robertson, *op.cit.*, p.23.

관심있는 이들의 실천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 보편 교회가 추구해 나가고자하는 공동비전임을 함께 인식하고자 한다.

2.1. 「계시현장」(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현장」(*Dei Verbum*)에서는 말씀의 봉사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하느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전하고 속으로 경청하지 않는 빈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영적 독서와 진지한 공부로 성경에 몰두할 것을 권고하였다.²²⁾ 또한 신자들도 하느님 말씀으로 가득찬 거룩한 전례와 영적독서를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하라고 당부하였다.

교회공동체가 성경을 읽고 수련함(*lectio et studio*)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빨리 퍼져나가고 분명해지기를 공의회는 바라고 있었다. 또한 하느님 말씀을 더욱 공경함으로써 영적 생명의 새로운 박동을 희망하였다.²³⁾

또한 교황 베네딕투스 16세는 「계시현장」 반포 40주년 기념 국제 대회에서 자신이 젊은 신학자 자격으로 본 현장의 초안 작성 과정과 토론에 참여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근래에 「계시현장」의 영향으로 하느님 말씀의 근본적 중요성이 크게 재평가 되었습니다. [...] 이런 맥락에서, 저는 특별히 오래된 전통인 ‘거룩한 독서’를 기억하며 다시 권고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성실히 성경을 읽으면, 하느님과 깊은 내적 대화에 이르게 됩니다. [...] ‘거룩한 독서’의 실천이 효과적으로 증진된다면, 교회는 ‘영적인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²⁴⁾

교황 베네딕투스 16세가 ‘거룩한 독서’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22)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계시현장」 25항.

23) 참조: 「계시현장」 26항.

24) 참조: 교황 베네딕투스 16세, 「계시현장」 반포 40주년 국제 대회 연설(2005.9.16.).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fr/speeches/2005/september/documents/hf_ben-xvi_spe_20050916_40-dei-verbum.html(2019.6.21.).

자신의 체험과 보편교회의 목자로서 자신이 갖게 된 미래비전 안에서 얻은 통찰임이 분명하다. 그는 또한 ‘거룩한 독서’를 통한 ‘영적인 새로운 봄’을 기대하고 있다.

2.2. 「주님의 말씀」(2010년)

세계 주교대의원회 후속 교서인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에 서는 기도하며 성경에 다가서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영성생활의 근본요소를 밝히며 ‘거룩한 독서’를 언급한다. 또한 ‘거룩한 독서’와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 오리게네스, 암브로시우스를 차례로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말이고, 성경독서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그대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고, 그대가 기도할 때는 그대가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²⁵⁾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친밀함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하느님을 알기 위한 최선의 길은 사랑이며,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²⁶⁾고 하였다.

성경을 읽는데 전념하십시오. 항구하게 이에 노력하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지향으로 독서를 하십시오. [...] ‘거룩한 독서’(τῆς θείας ἀγωγῆς; divinae lectioni)에 힘쓰면서, 흔들림 없는 충실함과 신뢰로 하느님 안에서 성경 안에 풍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의 미를 찾으십시오.²⁷⁾

오리게네스가 사용한 ‘거룩한 독서’를 지칭하는 그리스어 단어의 어원을 분석해보면 “θεία(신의 뜻에 따른)+ἀνα(상승적인)+γνώσ

25) 아우구스티누스, 「시편상해」(*Enarratio in Psalmum*) 85, 7, PL 37, 1086.

26) 참조: 교황 베네딕투스 16세,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86항.

27) 오리게네스, 「그레고리오에게 보낸 편지」(*Epistola ad Gregorium*) 3, PG 11, 92.

ις(이해)”라는 뜻이 도출된다.²⁸⁾ 그러므로 ‘거룩한 독서’에는 독서자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이끌려서 더 차원높은 인식과 이해에로 올라가는 역동이 담겨 있다. 한편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시 하느님과 함께 낙원에서 산책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⁹⁾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은 낙원을 거닐으십니다.³⁰⁾

교황 베네딕투스 16세의 회칙 「주님의 말씀」에서는 전통적인 ‘거룩한 독서’의 네 단계(읽음-묵상-기도-관상)에 덧붙여 ‘행동’(actio)을 제안하고 있다.

거룩한 독서는 본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되고 [...] 참으로 이해하려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성경본문은 그 자체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다음으로는 ‘묵상’이 뒤따르는데, 여기서는 ‘성경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묻습니다. [...] 다음으로는 ‘기도’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는가?’라는 질문을 전제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독서는 ‘관상’으로 끝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재를 판단하는 그분의 시각을 선물로 받습니다. [...] 또한 거룩한 독서의 역동은 ‘행동’에 이르기 전에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³¹⁾

2.3. 「복음의 기쁨」(2013년)

교황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거룩한 독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깨우치는 방법이며, 강론자가 성경 구절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주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것에 귀기울이고 성령

28) Cf. Renato Romizi, *Greco antico*, Bologna, 2006, p.79, 594.

29) 참조: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87항.

30) 암브로시우스, 「서간집」(*Epistola*) 49, 3, PL 1154.

31) 참조: 「주님의 말씀」 87항.

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독서’입니다. 이는 기도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깨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은 강론자가 성경 구절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³²⁾

그는 ‘거룩한 독서’가 강론자를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한다.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질문을 하라고 한다.

“이 말씀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주의를 끄는가? 왜 그것이 내 주의를 끄는가?”³³⁾

이러한 접근은 강론(*praedicatio*)을 완덕의 사다리에서 가장 위인 7번째 단계에 두고, 6번째는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고, 5번째는 의심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12세기의 신학자 알랭 드 릴(*Alain de Lille*, 1128~1202)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³⁴⁾

2.4. 「강론지침」(2015년)과 「사제성소의 선물」(2016년)

사목자들을 위한 「강론지침」(*Homiletic Directory*)에서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 접근법이 성경의 영성적 의미에 대한 교부들의 주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러 세기에 걸쳐, 평생동안 기도하며 성경을 숙고하였던 수도자들을 통하여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³⁵⁾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독서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 강론자가 강론을 준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례 본문과 성경 독서들을 묵상하는 방법으로서 이 거룩한 독서를 권장하고 있다.³⁶⁾

32)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152항.

33) 참조: 「복음의 기쁨」 153항.

34) Cf. M.-D. Chenu, o.p. *La théologie du Douzième siècle*, Paris, 1976, p.257.

35) 교황청 경신성사성, 「강론지침」(*Homiletic Directory*) 27항.

『사제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에서는 신학생이 성경본문과 전례기도를 내면화하여 신비교육의 영성을 흡수해나가기를 바라며, ‘거룩한 독서’를 통한 하느님 말씀과의 관계형성이 영적 성장 과정의 가장 우선적 자리에 놓여야 한다고 한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라는 말을 늘 명심하여야 한다. [...] 말씀 선포에 앞서 그 말씀을 마음 속 깊이 받아 들여야 한다. [...] 신학생들은 렉시오 디비나로 하느님 말씀을 알아 가도록 점진적으로 인도 되어야 한다. 날마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깊은 묵상을 실천하는 가운데 공부와 기도는 상호 도움이 되고, 이로써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보장 될 것이다.³⁷⁾ 『사제성소의 선물』 103항.

이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후 교회의 가르침들은 앞장에서 소개된 신학자들의 입장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수도신학 전통의 ‘거룩한 독서’를 다시 살려 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거룩한 독서를 특별히 양성과정 중인 신학생들과 강론 사제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3. ‘거룩한 독서’와 관련된 중세 영적 저자들의 본문들

본 장에서는 거룩한 독서와 관련한 중세 영성 저자들의 글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생 빅터의 후고(Hugues de Saint-Victor, 1097~1141)가 쓴 디다스칼리콘(*Didascalicon*),³⁸⁾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Epistola Aurea*), 귀고 2세(Guigue II, +1188)의 「수도승의 사다리」(*Scala Claustrialium*)를 살펴보고, 상호 간의 영향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36) 「강론지침」 28항.

37)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번역, 2018, p.96.

38) 라틴어 원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1096-1141,_Hugo_De_S_Victore,_Didascalicon,_LT.pdf(2019.6.29.).

3.1. 생 빅터의 후고의 「디다스칼리콘」

「디다스칼리콘」(1120년경)은 생 빅터 수도원이 연 세 학교에 오는 다양한 연령과 수준의 학생들에게 지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의 방향제시를 위해 썼다. 이 책을 통해서 후고는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모든 지식을 모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 정리된 지식이 인간의 완성과 거룩한 운명의 성취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³⁹⁾

그는 아벨라르두스(Petrus Abaelardus, 1079~1142)나 안셀무스(Anselme du Bec, 1033~1109)와는 달리 그리스도교 신비를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초인 구세사 안에서 파악한다.⁴⁰⁾ 그는 성경이 의미를 전달하는 길을 역사, 유비, 도덕적 가르침의 세 가지 갈래로 본다.

무엇보다 성경이 의미를 전달하는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역사(historia)와 유비(allegoria)와 도덕적 가르침(tropologia)이다. [...] 거룩한 말씀 안에는 영적으로만 이해되고자 하는 것도 담겨 있고, 도덕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단순히 역사적 의미만 가지는 것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역사만이 아니라, 유비적이고, 도덕적인 설명까지 자세히 하는 것이 적합할 때도 있다.⁴¹⁾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수련하고 상승해 나가는 단계를 거룩한 독서의 심화과정과 동일시하며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사람의 삶에는 미래의 완성을 위해 수련하고 상승해가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실천하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다섯 번째인 ‘관상’이 따른다. [...] 이 다섯 단계 중에 첫 번째인 ‘읽기’는 초보자에게 해당이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인 관상은 완전한 자들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단계들은 수련하는 이가 더

39) 참조: tr. Jerome Taylor, *The Didascalicon of Hugh of Saint Victor*, New York, 1991, p.3.

40) M.-D. Chenu, o.p. *op.cit.*, p.336.

41) tr. Jerome Taylor, *op.cit.*, p.120. 참조: 전영준,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 중세편」, 2018, 163쪽.

많이 올라갈수록, 더 완전해질 것이다.⁴²⁾

거룩한 독서와 관련한 생 빅터의 후고가 해 주는 설명을 요약하자면, 성경이 의미를 전달해 주는 하강적 갈래들이 있고, 그 성경을 읽으며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상승적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다.

3.2.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

생티어리의 기욤은 아벨라르두스와의 논쟁 중에 있을 때 ‘하느님의 산’에 새로 생긴 카르투지오회 수도원을 방문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황금편지」가 쓰여졌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내면이 ‘혼’(anima)-‘영혼’(animus)-‘영’(spiritus)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적수련들을 전해 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토론 중심의 ‘학교신학’에 대한 비판과 ‘거룩한 수업’에 대한 지지가 이어진다. 황금편지는 신학적 이론의 종합이 아니라, 실천적 적용에 대한 언급들로 가득 차 있는 편지다. 이 편지는 중세와 그 이후 시기에 수도자 양성의 지침서로서 많이 활용되었다.

생티어리의 기욤도 황금편지 안에서 ‘거룩한 독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 해보면 ‘읽기(lectio)-묵상(meditatio)-내적위안(affectus)⁴³⁾-기도(oratio)’이다. 이 과정으로 인해 생겨나는 효과는 영

42) *Ibid.*, p.132.

43) affectus(내적위안)는 *afficere*(=ad + facio)에서 나온 수동분사이다. 기욤은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주된 맥락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얻은 자유’를 말한다. cf. Wolfgang Zwingmann, “Ex affectu mentis: Über die Vollkommenheit menschlichen Handelns und menschlicher Hingabe nach Wilhelm von St. Thierry”, in *Citeaux* 18(1967), 7.

affectus는 본성적 욕구의 기본 에너지나 상태를 의미한다. cf. Bernard McGinn, *The Growth of Mysticism*, New York, 1994, p.251. 또한 affectus는 *caritas*의 시작을 알린다.

다비의 연구에 따르면, 기욤은 황금편지 안에서 affectio 8회, affectiones 5회, affectus 27회, afficere 6회, affectus est 1회, affectus fueris 1회, affectus(분사형) 5회, afficiendus 1회 = 54회 언급한다. 때문에 한 단어로 이 말의 모든 의미를 담을 수는 없다. cf. M.-M. Davy, *Un Traité de la vie Solitaire*, Paris, 1940, p.158. 다만 이러한 연구가들의 연구결과

혼이 지속적으로 정화되어 말씀을 이해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초심자들의 내면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너무 추상적인 가르침을 대하도록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것들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은총으로 사람 안에 태어난 하느님의 사랑을 독서가 젖먹이고, 묵상이 풀뜰기고, 기도가 위로하고 조명합니다. 동물적인 단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들에게 그들의 내면을 자극하기에 더 낮고 안전한 것은 우리 구세주의 외적인 것들을 읽고 묵상하도록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겸손의 모범을 보는 것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신심을 자극합니다. [...] 거기에서 역사적인 명료함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항상 무언인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초심자의 마음을 자극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벗어나게 합니다. 『황금편지』 171, 172항.⁴⁵⁾

‘거룩한 독서’를 실천하는 과정 중에 말씀을 통한 내적위안(affectus)이 생겨나고, 기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기도는 영혼을 계속 정화하여 다시 세우고 읽은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독서의 지속을 통해 내적위안(affectus)이 생겨나야 하고, 기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독서를 멈추게 하고, 멈추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puriorem continuo animum)를 지속하고, 독서의 이해력(intelligentiam lectionis)을 다시 세웁니다. 『황금편지』 123항.

를 존중하며 본 논문에서는 황금편지의 affectus를 후대 영성 저서들의 이해를 따라 ‘내적위안’으로 번역한다.

황금편지(1145)	준주성범(1427)	이나시오 영신수련(1524)
‘내적위안’(affectus)	‘내적 위로’(interna consolatio)	‘내적위안’(consolacion)

44) 참조: 정태영, 같은 논문, 161~164쪽.

45) Guillaume de Saint-Thierry, Lettre aux Frères du Mont-Dieu, tr. Jean Déchanet, Sources Chrétiennes n.223. Paris, 1985, pp.280~281. M.-M. Davy, Un traité de la vie solitaire, Paris, 1946. pp.120~121. 시토회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 수도원 편역, 같은 책, 121, 122쪽 참고 (본문에서 인용되는 「황금편지」는 데샤네와 다비의 라틴어 비판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을 주로 보았고, 시토회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 수도원 편역본을 참고하였다).

‘내적위안’(affectus)을 ‘거룩한 독서’의 과정 중에서 하나의 단계로 설명한 것은 기욤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3.3. 귀고 2세의 「수도승의 사다리」

「수도승의 사다리」에서 귀고 2세는 자신을 수도원으로 이끌어 준 영적 지도자인 제르베스 수사에게 책을 헌정하며 ‘거룩한 독서’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다.⁴⁶⁾ 그는 영적 계단을 네 단계로 설명한다.

하루는 손노동에 열중하면서, 사람의 영적수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의 네 영적 층계였습니다. [...] 독서는 열심한 마음으로 성서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묵상은 지성의 열심한 활동으로서, 자기 이성의 도움을 받아 숨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느님께로 향한 마음의 정성스런 노력으로서, 악을 멀리하거나 혹은 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상이란 영혼이 하느님께 이끌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고양되는 것으로서, 영혼은 이때 영원한 감미의 즐거움을 맛봅니다.⁴⁷⁾

그는 ‘거룩한 독서’에 대해 이론적으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사람들을 이끌어 체험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무슨 이유로, 형용할 수 없는 정감을 하찮은 말로써 표현해 보려 애쓰단 말입니까? 이는 체험하지 않은 이들로서는 알아들을 길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동일한 기쁨부음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때라야, 그들도 체험이라는 책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더 분명히 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적 문자는 읽는 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만일 설명해 주시는 영계서 마음으로부터 내적의미를 끌어내 주시지 않으면 말입니다.⁴⁸⁾

46) Intro. Edmund Colledge o.s.a. et James Walsh, s.j. dans Guigues II Le Chartreux, Lettre sur la vic contemplative, *Sources Chretiens* n.163. Paris, 1970, p.29.

47) 참조: 귀고 2세, 「관상생활에 대해 쓴 편지」, 엔조 비앙키 저/ 이연학 번역,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왜관, 2001, p.140. cf. *Sources Chretiens* n.163, p.84.

48) 참조: 같은 책, p.148. cf. *ibid.*, pp.98-101(이연학은 glossa를 (마음으로부터 길어올

그가 말하는 ‘체험이라는 책’⁴⁹⁾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뜻한다.

3.4. 상호 간의 영향과 이후 시대의 약화

‘거룩한 독서’에 관한 중세의 영적 저서들은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생 빅터의 후고는 고대 주석가들의 설명인 ‘읽기’·‘묵상하기’·‘기도하기’·‘관상하기’에 ‘실천하기’(operatio)를 ‘기도하기’와 ‘관상하기’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베네딕투스 16세 교황은 회칙 「주님의 말씀」에서 ‘행동’(actio)의 단계를 관상 뒤에 붙이고 있다.

생티어리의 기욤의 「황금편지」는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내적 위안’을 얻게 된다는 설명을 한다. 이점은 체험을 중시한 베르나르두스의 가르침과 함께 이후 서방의 ‘내적 위안의 신비주의’(affective mysticism)에 기초가 되었다.⁵⁰⁾

최종 정리자인 귀고 2세의 「수도승의 사다리」에서는 생 빅터의 후고와 생티어리 기욤뿐만 아니라 체험을 중시한 성 베르나르두스의 흔적도 엿보인다.

한편, 「무지의 구름」(1370)에서는 ‘거룩한 독서’의 단계들을 관상 기도의 초심자가 반드시 활용해야 할 요긴한 도움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관상 초심자가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요긴한 도움들이 있으니, 이른바 독송(lesson)과 묵상(meditation)과 기구(petition)이 그것이다.⁵¹⁾ 이를 더 일만

란) ‘해석’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리스어 어원은 *γλώσσα*(혀)이므로 사도행전 2장 3절의 ‘불꽃 모양의 혀들’(γλώσσαί ὡσεὶ πυρὸς) 즉,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49) “성베르나르두스는 세 권의 책을 말한다. 첫 번째는 창조의 책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책이고, 세 번째는 체험의 책이다. 체험의 책은 같은 메시지의 살아있는 거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cf. Bernard McGinn, *The Growth of Mysticism*, New York, 1994, p.186).

50) Cf. Paul Verdeyen, *Guillaume de Saint-Thierry: Premier auteur mystique des anciens Pays-Bas*, Belgium, 2003, p.56.

51) 중세 영어로, Lesson, Meditacion, Oryson이라는 세 용어는 교회 라틴어인 Lectio,

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읽기’(reading)와 ‘사색’(reflecting)과 ‘기도’(praying)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저자가 다른 곳에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다루고 있으니⁵²⁾ [...]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초심자들과 숙련자들에게는 읽거나 듣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사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⁵³⁾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1522~1524)에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거룩한 독서’의 단계와 비슷한 내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설명이 담겨 있지만 성경을 대상으로 한 언급은 아니다.

기도의 둘째 방법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더 큰 성향과 그에 따르는 깊은 신심에 따라, 무릎을 꿇든지 앉든지 하여, 눈은 두리번거리지 말고 감든지 한 곳을 응시한 채로 ‘아버지’를 외운다(diga Pater). 그리고 이 말을 숙고(consideracion)하는데,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significationes), 비유(comparaciones), 맛과 위안(gustos y consolacion)을 찾게 되면 그 시간만큼 거기 머문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문의 각 말마디를 같은 방법으로 하며, 또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다른 기도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영신수련』 252항.⁵⁴⁾

이처럼 14세기의 「무지의 구름」이나 16세기의 「영신수련」에서 ‘거룩한 독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독서’의 전통이, 성경을 논리적 관심으로 대하던 스콜라 신학이 지배하던 시대에, 신학과 영성생활 안에서 점차적으로 약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18세기 말에 대혁명을 겪은 후 프랑스 교회에서는 19세기 초 미네(Jacques Paul Migne, 1800~1875)와 계랑거(Prosper Louis Pascal

Meditatio, Oratio에서 직접 끌어냈다(cf. James Walsh, S.J., *The Cloud of Unknowing*, New Jersey, 1981, p.187).

52) 아마도 「수도승의 사다리」를 말하는 듯하다. 중세 영어번역본의 이름은 “A Ladder of four rungs by means of which men may truly climb up to heaven”이다(cf. James Walsh, S.J., *op.cit.*, p.79).

53) 클리프턴 월터스 지음 / 성찬성 옮김, *무지의 구름*, 1997, p.124.

54)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 정한채 번역, 주해, 「영신수련」, 2011, p.136. cf. S. Ignazio di Loyola, *Esercizi Spirituali Ricerca sulle fonti con testo originale a fronte*, Torino, 1995, p.326.

Gueranger, 1805~1875)가 각각 교회의 원천인 교부들의 글을 모으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신의 원천으로서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의 교과서와도 같은 전례주년의 집필에 몰두하였다.⁵⁵⁾

그리고, 20세기 초반 일단의 학자들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 현장」의 작성에 참여한 교부들은 스콜라 신학 이전 시기에 꽃피었던 ‘거룩한 독서’ 중심의 영성과 신비생활의 전통을 다시 살리기를 호소하였던 것이다.

4.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에 나타난 내적인 삶의 도구들⁵⁶⁾

‘거룩한 독서’를 단지 어떤 기술처럼 익혀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내적인 삶이 함께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새로운 영성의 봄’이 찾아 올 것이다. 본장에서는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 안에 나타나는 ‘거룩한 수업’(studia sancta)을 ‘거룩한 독서’를 위한 다른 내적인 삶의 도구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1. 거룩한 수업

기욤은 「황금편지」 안에서 거룩한 수업(studia sancta)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아벨라르두스가 행하던 ‘학교신학’의 방법론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고 있다.

이 수업은 어느 정도 문자의 도움을 받지만 문법학은 아닙니다. 비야냥이나 토론이나, 잡담이 아니라, 영적이고, 평화롭고, 겸손하고, 작은 것들에도 공감(consentientia)을 합니다. 이 수업은 외부에서 행해지

55) Guy-Marie Oury, *Histoire de La Spiritualité Catholique*, Chambray-lès-Tours, 1993, pp. 235~237.

56) 본장은 본인의 논문,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에 나타난 거룩한 수업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19, 제4장(pp.137~167)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지만 오히려 내부에서 정신에서 작용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고,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거룩함과 진리의 의로움 안에 다시 납니다. 『황금편지』 213항.

‘거룩한 수업’을 위한 출발점이 문자이다. 처음에 문자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곧이어, 영적인 의미를 찾는 데로 넘어간다. 이것은 오리게네스의 뒤를 이은 교부들이 ‘거룩한 독서’를 바탕으로 성경에서 ‘문자-비유-도덕-영적’ 의미를 추구하던 중세의 주석전통이다. 여기에 덧붙여 기욤이 중요한 요소로서 ‘공감’을 언급한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설명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행해지지만 내부의 정신에서 작용한다’는 말은 거룩한 수업이 ‘내적양성’의 길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한편 생티어리의 기욤은 아벨라르두스같은 변증론자(homo dialecticus)들의 의심 많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질문들을 거절한다.⁵⁷⁾

바로 사도가 주신 법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모든 이들은 영혼(animus)을 이루고, 선한 지성(intellectus bonus)이 됩니다. 즉,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내세우도록 배웁니다. 곧 많이 견디어 내고,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욕살이와 단식,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황금편지』 214항.

동물적 인간의 혼(anima)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난과 재앙을 견디면서 거룩한 수업을 실천하여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 그리고 나면 혼(anima)은 무질서한 집착들을 이겨낸 정화된 영혼(animus)이 되고, 선한 지성(intellectus bonus)이 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할 준비가 된다.

이와 같은 것이 거룩한 수업이요, 사도적 수련입니다. 이를 통해 영혼은 오직 하느님과 함께 토론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고칩니다. 그리고, 모든 육적 영적 더러움에서 자신을 씻고,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 안에서

57) 참조: 가톨릭 교회교리서 115~119항; Henri de Lubac, *Exégèse Médiévale*, Paris, 1959, p.107.

거룩하게 됩니다. 『황금편지』 215항.

기욤은 거룩한 수업을 ‘사도적 수련’(exercitia apostolica)이라도 표현한다. 그는 스콜라 신학으로 인해 간과될 위기에 처한 ‘수련’(exercitia)이라는 전통을 「황금편지」를 통하여 후대로 넘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데보시오 모데르나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⁵⁸⁾ 훗날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책 제목을 ‘영신수련’(exercitia spiritualis)이라 하여 수련 전통의 계보를 이어간다. 또한 ‘사도적’(apostolica)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분석해보면 그리스어 ἀποστέλλω = ἀπο(여기서 떠나) + στέλλω(가다)는 의미이다. 즉, 거룩한 수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육적 영적 더러움을 씻고, 현재 내가 있는 무질서한 집착의 상태를 벗어나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거룩한 수업을 하는 이의 영혼(animus)은 학교에서 ‘사람과 토론’하는 아벨라르두스의 신학과 달리 ‘하느님과 담화’한다. 이를 ‘사도적 수련’이라 한다.

(거룩한) 수업은 침묵을 좋아합니다. 육체노동 가운데 마음의 고요를, 외적인 고통가운데 영혼의 가난과 평화를, 몸과 마음의 순수함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갈구합니다. (거룩한) 수업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anima)으로- 영혼(animum)을 이룹니다. 꾸밈이 많고, 수다스럽고, 논쟁적이고, 호기심 많고, 야망이 있는 헛된 연구(vana vero illa)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완전한 영혼을 부숴버리거나 변질되게 합니다. (거룩한) 수업은 덕행의 꽃보다는 뿌리를, 화려하기 위해서보다는 존재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보다는 갖기 위해서 탐구합니다. 『황금편지』 216-217항.

거룩한 수업을 통해 인간의 ‘혼’은 ‘영혼’이 된다. 이 수업은 아벨라르두스의 신학이 수다스럽고, 논쟁적이고, 호기심 많고, 야망이 있는 헛된 연구임에 비해서, 덕행의 뿌리를 탐구하고, 화려함과 호기심보다는 존재함과 갖춤을 추구한다.

58) 참조: 정태영, 같은 논문, 170쪽.

4.2. 독방

영성수련을 하려는 이들의 수련이 이루어지는 곳은 독방이다. 독방은 하느님 현존이 드러나는 곳이다. 때문에 수련자는 자신의 독방을 잘 견디고, 거기에 잘 머물러야 한다. 어느 장소에 자기 육신을 항구하게 묶어두지 못하는 이는 자기 영혼을 한 가지에 충실히 머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기 영혼의 약함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벗어나려고 하는 이는 자기 육신의 그림자를 벗어나려 하는 것과 같다.

병들고, 지친이여, 그대의 치료실은 그대의 독방(cella)입니다. 나머지가 시작되도록 그대가 받은 약은 순명(oboedientia)입니다.⁵⁹⁾ 진정한 순명입니다. 『황금편지』 97항.

기욤은 여기서 어원에 근거한 유비적 의미를 활용하고 있다. 독방(cella)의 어원은 ‘감추다’(celare)이므로 독방의 유비적 의미는 ‘감추임’이다.

‘숨긴다’(a celando)는 말에서 천상(caelum)과 독방(cella)이란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천상에 숨어있는 것이 독방에도 숨어 있습니다. 천상에서 지나는 것이 독방에서도 지니게 됩니다. 『황금편지』 31항.

그리고, 순명(oboedientia)의 어원은 ‘바짝 대고’(ob) + ‘들다’(audire)이고, 의미는 귀 기울임이다. 그러므로, 독방(cella)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oboedientia), 감추어진 천상의 진리를 찾는 것이 수련자가 해야 할 일이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약이다.

59) 생티어리의 기욤은 베네딕투스의 전통을 따라 순명을 강조한다. 순명은 수도생활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4.3. 내면의 방

영혼이 기도하고 싶어 할 때 ‘거룩한 지향’은 그것을 이끌어주고, 생겨나는 내적인 것들이 ‘내면의 방’(conscientia)⁶⁰에 잘 어울리도록 하고, 무가치한 외적인 것들은 물리친다. 내면의 방에서 하느님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머무르게 된다. 눈에 보이는 ‘독방’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방’의 상징이다.

사실, 내적인 삶을 지향하는 영혼에게는 오히려 꾸미지 않고 외적인 면을 소홀히 한 것들이 더 잘 어울립니다. 영혼이 집의 주인입니다. 영혼은 자주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향은 (영혼이) 갈 곳을 알려줍니다. 내면의 방은 내적인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만, 모든 외적인 무가치한 것들은 거부합니다. 『황금편지』 154항.

이렇게 정화된 내면의 방의 주인은 바로 ‘영혼’(animus)이다.⁶¹ 이 영혼은 내면의 방 안에서 기도할 곳을 찾는다. 거룩한 지향이 영혼을 이끌어주고, 내적인 것들 즉, 성덕을 내면의 방에 받아들여도도록 하고, 무의미한 외적인 것들을 거부하게 한다.

용감하게 더 큰 은총의 선물을 맞보고 바라십시오.⁶² 그대 자신이 집 짓는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는 외부의 방이고, 하나는 내면의 방입니다. 외부의 방은 그대 영혼이 그대 육신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내면의 방은 그대의 양심입니다. 거기는 그대의 모든 내면보다 더 내적이신 하느님이 그대의 영혼과 함께 머무실 곳입니다. 봉쇄구역의 바깥문은 내면의 문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각이 외면의 문을 통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듯이, 내면의 감각들은 자신을 향하여 항상 내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그대 내면의 방을 사랑하십시오 [...] (외면의 방) 그 안에서는 그대의 악습에 대해서 보살피고, 다른 이들

60) 기욤은 아가서 주석에서 이 내면의 방(conscientia)을 ‘꽃으로 장식된 상’(lectulus floridus, lectus floridus, ad lectum floridum, in lecto conscientiae florentis)이라고 여러 번 표현한다(Guillaume de Saint-Thierry, “Exposé sur le cantique des cantiques”, *SCh.* 82, Paris, 2007, p.230, 252, 276, 300).

61) 혼(anima)이 육신적인 것을 이겨내고 성장한 상태.

62)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1코린 12,31).

과의 다름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면의 방) 그 안에서 성령의 은총과 내적 감미로움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대 내면의 방을 존중하십시오. 『황금편지』 105~106항.

이렇게 만들어진 내면의 방으로 들어가라는 충고는 신비가들에게 상당히 가치 있는 길잡이가 된다. 생티어리의 기욤은 내면에 대한 이해에 눈뜨고, 자기자신을 알도록 이끌어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방법은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도 바오로의 ‘내적인간’(ἔσω ἄνθρωπος)⁶³⁾ 개념을 바탕으로 세워놓은 높은 신비신학의 전통적인 길이다. 12세기에 생티어리의 기욤과 생빅터의 리차드(Richard de Saint-Victor, 1110~1173)가 발전시켰고, 14세기에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8)와 루이스부로익(John van Ruysbroeck, 1293~1381)이 이어갔고, 16세기에는 아빌라의 데레사(Saint Teresa of Jesus, 1515~1582)가 신비체험의 장소를 내면의 성(*castillo interior*)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학파(Ecole française)의 베뤼엘(Pierre de Bérulle, 1575~1629)이 언급한 ‘내적인간’(*L'Homme intérieur*)이 17세기 전체를 특징짓는 표현이 되었다.⁶⁴⁾

4.4. 관상

생티어리의 기욤의 관상에 대한 설명은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수도규칙」의 가르침과 연장선상에 있고 그것을 완성한다. 이것은 마치 신약성경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또한 전례는 가장 순수한 관상의 원천이기도 하다. 『황금편지』에서는 관상 중에 황홀에 자주 들어가려 애쓰기보다, 악습을 이겨내는 수련을 하며, 겸손의 덕이 제2의 본성이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늦추지 않는 수도자들을 보여준다. 또한 능동적 수덕생활을 실천하려 애쓰는 초심자들을 보게 된다. 생티어리의 기욤은 관상 안에 섬, 달콤한 섬(*delicatum*

63) 참조: 로마 7,22; 2코린 4,16; 에페 3,16.

64) Cf. Michaela Pfeifer, “Wilhelms von Sainnt-Thierry Goldner brief un seine bedeutung für die zisterzienser”, *Analecta Cisterciensia* 50(1994), 138.

otium), 풍요로운 쉼이 있다고 말한다. 관상적 삶이란 ‘이루어 주시는 쉼’이며, ‘교환하는 쉼’이라고 설명한다.⁶⁵⁾

모든 유혹들, 나쁜 생각들, 무익한 쓰레기는 한가로움입니다. 정신의 악 중에 최고는 게으른 한가로움입니다. 하느님의 좋은 비록 하느님 앞에 축제를 지낼 지라도 결코 한가로워서 안 됩니다. 분명히 의심스럽고, 헛되고, 약한 이름은 확실하고 거룩하고, 진지한 일에 붙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비우는 것이 한가로움일까요? 오히려 이것은 일 중의 일입니다. 누구든 독방에서 이것을 충실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한가로움입니다. 『황금편지』 81항.

하느님께 ‘비워 드리는 것’(vacare Deo)은 한가로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세상의 일에서 나와 하느님께로 집중하는 것이고, 관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4.5. 의식성찰

생티어리의 기욤이 살았던 12세기는 수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유행하던 시기이다. 특별히 ‘의식성찰’에 대한 가르침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베르나르두스⁶⁶⁾의 이름아래 널리 소개된 생티어리의 기욤의 「황금편지」에서 나오는 의식성찰은 대단히 인기를 누렸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무언가 새롭게 했다고보다는 ‘초심자’와 ‘진보한 자’ ‘영적인 자’가 해야 할 바를 단계적으로 잘 정리하여 수련과정으로 자리를 잡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⁶⁷⁾

65) Cf. Jean-Marie Déchanet, V. “La contemplation au XII siècle”, *Dictiannaire de Spiritualité* II/2, Paris, 1953, 1950.

66) 12세기에 베르나르두스가 쓴 것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어떤 책에서 제시하는 성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날에 했던 생각과 말을 성찰한다. 둘째, 지옥과 낙원의 두 도시를 떠 올린다. 셋째, 우리의 생각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본다(PL 184, p.1174).

67) Cf. Irénée Noye, “Examen de conscience”,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IV/2, Paris, 1961, 1812~1813.

초심자가 하루 중에 해야 할 일은 매일의 기도와 ‘거룩한 독서’ 수련 외에 세단계의 의식성찰이 요구된다. 즉, 양심(의식, 혹은 내면의 방)을 검토하고, 고치고, 질서 잡는 것이다.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습니다. 그대는 그대를 어디에 전념합니까? 먼저 매일의 기도제사(cotidianum orationum sacrificium), ‘거룩한 독서’ 수련(lectionis studium)의 외에도, 매일 양심(혹은 의식)을 검토(conscientiae discussioni)하고 고치고(emenationi), 질서를 잡는(compositioni)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황금편지』 83항.

진보한 이에게도 초심자에게 제시된 이 수련은 필요하다. 이성적 인간은 거룩한 공부와 사도적 수련을 통해서 내면이 새로워진다. 이를 통해 영혼과 선한 지성이 이루어진다. 영적인 사람 즉,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들’과 ‘이미 사랑하는 이들’ 또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양심을 성찰해야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들, 혹은 이미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식성찰을 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영이 원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원하는지, 육신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지 (말입니다). 『황금편지』 254항.

생티어리의 기욤은 뒤만 돌아보는 성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⁶⁸⁾ 이 수련은 아침, 저녁으로 두 번하라고 한다.⁶⁹⁾

68) 이것은 오늘날 의식성찰이라 부르는 의미와도 통하는 바가 있다.

69) 반면 시토회 수도자 아르노르드(Arnauld de Bohéries)는 『수도자의 거울』(*Speculum Monachorum*)이란 책에서 수도생활 안에서 성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하지만 그의 성찰은 뒤를 돌아보는 것 중심이다. “일을 마친 후 매일, 수도자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돌아보아야 한다. 수도자는 자기 생각들을 모으고, 조심스레 공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날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잘못을 세어보아야 한다. 매일 밤 자기 침대를 씻으며, 즉, 자기 죄에 대해 스스로 눈물과 참회로 정화하며 각각의 것을 정확하게 세어보아야 한다. 그것이 공적인 것이라면, 그 다음날 공적으로 자신을 고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고백하여야 한다”(PL 184, 1176b). 이 매일의 성찰은 한 가지 점을 알게 해준다. “살아온 오늘 하루

아침에는 스스로 지난밤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새날의 계획을 정하십시오. 저녁에는 지나간 낮에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덮쳐오는 밤을 계획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바빠서 방종함이 절대 그대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황금편지』 108항.

일반적으로 의식성찰 수련은 수련자가 ‘자기의식’ 혹은 ‘내면의 방’(conscientia)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 성찰의 목적은 결함을 완전히 없애거나 정해놓은 이상에 인위적으로 부합해가려는 것도 아니다. 이 성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의 모상인 하느님에 대한 삶에 이르고자 한다.⁷⁰⁾

4.6. 영적 지도

영적 지도는 새로운 영성의 봄을 살려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사목자들이 영적 지도의 마음으로 신자들을 대할 때 교회가 복음정신으로 생기있던 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는 항상 그대 가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두려움 없이 고독할 수 있고, 독방에서 더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세 보호자—하느님과 내면의 방과 영적 아버지(spiritualis pater)—가 그대에게 임명되었습니다. 하느님께는 신심을 바쳐야 합니다. 그분께 그대를 온전히 바치십시오. 그대 내면의 방에는 명예를 주십시오. 그 방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당신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영적 아버지에게는 사랑의 순명(oboedientiam caritatis)을 드리십시오. 모든 것으로부터 그분께 상의하십시오. 『황금편지』 101항.

와 그 이전의 날을 비교해 보라. 그 비교는 자신이 성장하는 지 후퇴하는지 알게 해줄 것이다”(1177b). 그는 저녁성찰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70) 『내면의 집에 관한 논고』(Tractatus de interiori domo)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는 없다. “거울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 참된 회개자는 거울을 매일 본다. 그것을 깨끗이 하고, 굳게 잡고, 보존한다. 하느님을 언짢게 한 것이 없는지 보고 행동들뿐 아니라 생각들도 깨끗하게 하라. [...]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라.” PL 184, 513; Irénée Noye, *op.cit.*, p.1814.

영적 지도의 문화가 건강하게 살아날 때 영적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순명도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될 것이다.

결론

칼 라너(Karl Rahner, 1904-1984)는 ‘미래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체험을 가진 신비가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적인 신앙생활을 멈추어 버릴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적인 것에서 인격적 체험과 결단으로 사람들을 부를 것이며, 더 이상 일치된 공적 확신으로 유지되거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¹⁾

라너의 이러한 예견은 오늘날 ‘탈 제도적 신앙태도’를 가진 이들이 많아지는 모습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들의 마음에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담기에 우리의 제도가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줄어드는 주일미사 참여율도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좀처럼 되돌려 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세의 본문들이 현대에 건네는 목소리에서 귀기울여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무엇보다 하느님 현존과 신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교회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τὸ ἄλας μωρανθῆν 마태 5,13 참조)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기르기 위해 거룩한 독서⁷²⁾와 그에 병행하는 ‘사도적 수련’이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71) Karl Rahner, *Theological Investigations VII*, David Bourke(tr.), New York, 1971, p.15

72) “성경을 관찰 권위가 승인한 본문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마땅히 드러야할 존경심을 지니고 영적 독서(lectio spiritalis) 방식으로, 적어도 반시간 동안 읽는 그리스도 신자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참조: 「주님의 말씀」, 각주. 298, p.149).

[참고 문헌]

1. 단행본

- Chenu, M.-D., o.p., *La Théologie Au Douzième siècle*, Paris, 1976.
- Davy, M.-M., *Un traité de la vie solitaire*, Paris, 1946.
- De Lubac, Henri., *Exégèse Médiévale I*, Montaigne, 1959.
- De Saint-Thierry, Guillaume., *Lettre aux Frères du Mont-Dieu*, Sources Chrétiens n. 223. tr. Jean Déchanet, Paris, 1985.
- Leclercq, Jean., O.S.B, *The love of learning and the desire for God; A Study of Monastic Culture*. tr. Catharine Misrahi, New York, 1996.
- McGinn, Bernard., *The Growth of Mysticism*, New York, 1994.
- Oury, Guy-Marie, *Histoire de La Spiritualité Catholique*, Chambray-lès-Tours, 1993.
- Rahner, Karl., *Theological Investigations VII*, David Bourke(tr.), New York, 1971.
- Robertson, *Lectio Divina: The medieval Experience of Reading*, Minnesota, 2011.
- Taylor, Jerome(tr.), *The Didascalicon of Hugh of Saint Victor*, New York, 1991.
- Verdeyen, Paul, *Guillaume de Saint-Thierry: Preimier auteur mystique des anciens Pays-Bas*, Belgium, 2003.
- Walsh, James S.J., *The Cloud of Unknowing*, New Jersey, 1981.
- Wilmart, André., *Auteurs Spirituels et Textes Dévots du Moyen age Latin*, Paris, 1971.
- 교황 베네딕투스 16세,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 교황청 경신성사성, 「강론지침」(*Homiletic Directory*).
-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번역, 2018.
- 국제신학위원회,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 손희송 외 옮김, 2012.
- 귀고 2세, 「관상생활에 대해 쓴 편지」, 엔조 비앙키 저/ 이연학 번역,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왜관, 2001.
-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 정한채 번역 및 주해, 「영신수련」, 2011.
- 시토회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 수도원 편역, 「황금서간」, 2003.
- 전영준,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 중세 편」, 2018.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계시현장」.
- 클리프턴 윌터스, 「무지의 구름」, 성찬성 옮김, 1997.

2. 정기간행물

Pfeifer, Michaela., “Wilhelms von Sainnt-Thierry Goldner brief un seine bedeutung für die zisterzienser”, *Analecta Cisterciensia* 50, 1994.

3. 학위 논문

정태영,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에 나타난 거룩한 수업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19.

4. 사전 및 편집 단행본

Déchanet, Jean-Marie., “La contemplation au XII siècle”, *Dictiannaire de Spiritualité* II/2, Paris, 1953.

Guigues II Le Chartreux, Lettre sur la vic contemplative, *Sources Chretiens* n.163. Paris, 1970.

Noye, Irénée., “Examen de conscience”,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IV/2, Paris, 1961

Romizi, Renato., *Greco antico*, Bologna, 2006.

아우구스티누스, 「시편상해」(*Enarratio in Psalmum*) 85, 7, PL 37.

오리게네스, 「그레고리오에게 보낸 편지」(*Epistola ad Gregorium*) 3, PG 11.

생티어리의 기욤은 「황금편지」를 통해서 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완성하였다. 이는 후대의 남자 수도자들뿐 아니라 여자 수도자들과 도미니코회 제삼회 회원들 및 수도회의 서원은 하지 않았지만 은수생활을 추구했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는 당시(12C) 유행하기 시작한 논리 변증중심의 신학방법론을 ‘헛된 수업’(studia vana)이라 하고, 고대 그리스도교 때부터 전해져 오는 렉시오 디비나를 바탕으로 한 내적변화와 수련 중심의 신학방법론을 ‘거룩한 수업’(studia sancta)이라고 하였다. 그는 권위를 따르는 앎과 이성적 추론을 통한 앎에 이어 ‘사랑을 통한 앎’(Amor ipse intellectus est)을 앎의 가장 높은 단계로 설명하였다.

중세 필사본들을 오랫동안 연구한 빌마트는 「황금편지」가 베르나르두스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던 흐름을 거슬러서 저자가 생티어리의 기욤임을 입증하였다. 체누, 르클레르크, 앙리 드 뤼박 등도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 안에서 생티어리 기욤의 영성사적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

생티어리의 기욤은 렉시오 디비나의 과정을 읽고(lectio)-묵상하고(meditatio)-내적 위안을 얻고(affectus)-기도하는(oratio) 단계로 설명하였다. 묵상이 무르익을 때 묵상하는 이의 마음속에 ‘내적 위안이 생겨난’(affectus)다는 설명은 다른 이들과는 다소 차별적인 주장이다. 성독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위안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결합하게 된다는 그의 이해는 훗날 서방 신비주의(affective mysticism)의 특징적인 면이 된다.

「중세주석」이라는 책을 쓴 앙리 드 뤼박은 렉시오 디비나가 주석의 옛날 형태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며 오랜 시간동안 다듬어진 그리스도교 종합의 가장 중요한 형상(la

forme)이라고 하였다.

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문헌에서는 렉시오 디비나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특별히 교황 베네딕투스 16세는 ‘기록한 독서의 실천이 효과적으로 증진된다면, 교회는 영적인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 주제어: 렉시오 디비나, 기록한 수업.